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1호 【루계 제25364호】 주체105(2016)년 8월 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우리 조국땅우에 만리마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려명거리건설자들이 불과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십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내고 거리의 웅장한 자태를 펼쳐놓아온 나라를 놀래게 하고있다. 74일동안에 70층짜리 초고층살림집골조공사 완공, 이것은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상징하는 눈부신 건설속도이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만리마의 기수가 되고 시대의 영웅이 될 일념으로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것이 오늘의 벅찬 현실이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하라!》,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세기적비약과 변혁의 만리마시대로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로선들과 투쟁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결기하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전개할데 대한 당의 호소가 천만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온 나라를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게 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운동이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가장 빛나게 장식할수 있는 과감하고 전격적인 변혁운동, 혁신운동이기때문이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당중앙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만리마의 우렁찬 발굽소리는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예고하는 힘찬 메아리로,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을 쳐갈기는 불벼락으로 될것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전당, 전군, 전민이 당중앙과 사상의 일색화, 숨결과 발걸음의 일체화를 확고히 실현해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진군운동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을 받들어, 일편단심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가는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전로성을 높이 올리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며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사상리론들에는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묘술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축지법으로 일관되여있다. 《단숨에》,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이 시대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창조정신, 창조방식의 구현이다. 해마다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새거리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수많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나고있는 우리 조국의 눈부신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전진속도가 어떤것인가를 새겨주고있다.

일심단결은 만리마의 힘찬 박차이고 억센 기상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중앙과 사상의 일색화, 숨결과 발걸음의 일체화를 실현해나간다는것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닮는다는것이다. 천만심장이 령도자의 사상과 의지로 높뛰고 천만의 발걸음이 령도자의 혁명시간에 보폭을 함께 해나가는데 만리마속도창조의 근본비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여 숭고한 리상과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만리마의 속도로 세월을 주름잡아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자력갱생대진군운동이다.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기 식이 제일이다. 당대회에서 결정한대로 빠른 기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해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귀중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력자강의 정신만 강하면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고 세기를 도약하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우리의 자강력은 과학기술의 힘이 만장약된 위력한 창조의 무기이다. 천리마가 남을 따라앞서기 위한 비약의 준마였다면 만리마는 세계를 디디고 솟구쳐오르기 위한 과학기술봉마이다. 오늘날에는 그가 누구이든 과학기술을 모르면 애당초 만리마를 탈수 없고 자강력의 강자도 될수 없다. 과학기술만이 살길이라는 당중앙의 호소따라 누구나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초음속비행기와 같이 전속, 패속으로 내달려야 하는 전인민적총진군이 바로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압력과 제재봉쇄책동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있지만 우리 조국은 더욱더 세차게 전진하고있다. 자강력과 과학기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주체조선의 만리마대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은 끊임없이 새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며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는 사회주의경쟁운동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이 비끼고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본보기, 전형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미래과학자거리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무산공장과 평양중등학원을 비롯하여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창조와 건설의 표준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사고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으며 전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는것이 오늘의 자랑찬 현실이다.

자기 령도자의 뜻을 받드는 길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순결한 마음,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려는 무한한 헌신성, 서로 돕고 이끌며 다같이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가려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지배하는 경쟁의 식이다. 이런 경쟁심을 바탕으로 앞선 단위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뒤떨어진 단위들은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하여 련속공격, 계속전진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대중의 경쟁열의이자 사회의 활력이고 조국의 전진속도이다. 누구나 만리마선구자가 되고 어데서나 만리마선구자단위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쟁을 드세차게 벌려나갈 때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것이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젊음으로 약동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만리마의 기수들을 부르고있다.

우리는 당과 혁명, 조국과 후대들앞에 지닌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새기고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변혁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할 투철한 신념을 지니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은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체질화하여야 한다. 당정책관철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손,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동지, 전우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부강번영의 기상을 높이 떨치는 길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지상의 혁명임무로 여기고 자기의 뼈를 깎고 피와 땀을 바치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가져야 한다. 주체조선의 만리마가 오직 당중앙이 정한 공격침로따라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내닫는는 당중앙결사옹위의 만리마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만리마는 용감무쌍한 공격투사만이 탈수 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헤치며 사소한 침체와 탐보도 없이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만리마의 기상이야말로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거세찬 분출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빠속깊이 새기고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힘, 조선의 기상, 조선의 속도를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자강으로 천리제일강국을 건설해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백절불굴의 공격전으로 극악한 제재봉쇄를 일삼는 원쑤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겨야 한다. 패배주의, 수입병, 보수주의, 안일해이와 같은 온갖 장애물들을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짓뭉개고 이 땅에 오직 백두의 공격정신, 만리마의 말구름소리만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과 기계, 화학, 채취, 건재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야 한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농업부문에서 원쑤들을 전률케 하는 알곡생산의 풍작혼을 부르고 수산과 축산부문에서 더 많은 물고기와 고기들 생산하며 산림부문에서 산림조성사업의 강력한 병기창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온 나라가 떨쳐나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함으로써 비약하는 만리마시대에 황금벌, 황금해, 황금산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명상품, 명제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최단기간내에 일떠세운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에서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눈부신 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전의 로성을 높이 울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전진속도는 위대한 혁명사상, 시대정신을 체현한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의 산물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천만대중의 심장속에 혁명적수령관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심어주기 위한 5대교양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을 들이댐으로써 전투장들이 기적과 혁신의 불도가니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오늘의 시대를 대표하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우리 청년들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도 만리마속도로 새로운 영웅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우리 당이 태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새로운 시대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며 세기적변혁을 이룩해온 자랑스러운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불가능을 모르는 강용한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주체조선의 만리마는 더 빨리, 더 힘차게 솟구쳐오를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 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 회장인 무라야마 도모히꼬단장이 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종합조종실, 건본실, 그물작업반, 바줄작업반, 피작업반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기술장비수준과 생산실태,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 어구생산에 필요한 현대적인 제망기, 권사기, 성형기 등을 그뜬히 갖추어놓은 결과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된 조선인민군 어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기술장비수준과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진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공장의 로동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도록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구종합공장이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인 쁘리모르스끼 레포르쯔르, 베헬, 루,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환구망,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인민망, 국제방송망,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리마건재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조선과의 친선협회 롯스까지부 인터네트홈페지는 이 소식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추동한 전투적기치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정의 200일전투의 날과 날들을 기적과 혁신창조로 빛내이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조국해방 71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자주적혁명정신과 주체적인 로선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항일혁명전쟁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대군과 결사전을 벌린 세계전쟁사상 류례없는 가장 간고하고 시련에 찬 피어린 투쟁이였다.

20성상에 걸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항일혁명전쟁사에는 조선혁명의 진로와 명확한 투쟁목표가 명시된 구호들을 제시하시여 투사들과 인민들을 항일혁명의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아로새겨져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구호들은 항일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혁명을 임대 앙양에로 추동하였으며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략들을 밝혀준 전투적기치, 력사적리정표로 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고한 인민관을 담은 혁명적인 구호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이민위천의 사상이 빛발치는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호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구호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혁명선렬들이 심장에 새겨안은 인민적인 구호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군대와 인민의 혈연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게 한 군민대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되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해방된 조선의 역군으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동단앞에 **《조선의 독립과 전세계무산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친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속에 아동단원들은 군중계몽, 연예활동, 보초근무, 통신련락, 적정탐지, 무기탈취, 생산활동 등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하여 소년혁명가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갔으며 이 나날 김금순과 같은 수많은 소년영웅들이 태여났다.

혁명의 개척기에 사상사업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구호 **《하나의 사상의지로 뭉치자!》**에서 빛나고있으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선군혁명사상은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조국에 무보를 펼치고 군호를 올리자!》** 등에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항일투사들과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준비시키는데서 학습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학습도 전투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비롯하여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내놓으시였다.

구호들에 담겨진 혁명의 요구를 깊이 자각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각지 혁명조직성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열심히 배워 조선혁명의 전략전술과 해방후 당, 국가, 무력건설을 비롯한 새 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연구학습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새겨안았다.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완수해나가시려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철의 의지는 혁명적구호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에도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주체30(1941)년 5월 정치공작소조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자기 힘, 자기 인민의 힘을 믿는데서 생기며 자기 령도자, 자기 집단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설한풍 몰아치는 백두의 전구에서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생명으로 간직한 항일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영웅적항쟁사를 수놓아올수 있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일제와의 최후결전의 시각을 앞둔 주체34(1945)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힘을 항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무장대, 무장봉기조직들을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준비에로 총궐기시킨 승리의 기치였다.

항일대전의 총성속에 주체34(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되였으며 삼천리조국강산에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의 환호성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만장약된 혁명의 구호들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새겨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통일되고 부강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광물생산에서 련일 혁신

은파광산에서

은파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광산에서는 6월에 이어 7월 생산계획을 101%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당창건기념일까지 년간 유색금속광물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광산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광부들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열의안고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들이대고있다.

일군들이 갱들을 맡고나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광부들이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광산참모부에서는 상반년도에 비해 2.5배로 높아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광산에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광산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 발파자재와 전동기들의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선광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기술과, 기술발전과, 선광직장의 기술자들은 부선제통에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적극 만아들여 품위가 낮은 광석에서 선광실수률을 훨씬 높이였다. 그리고 선광에 필요한 많은 량의 시약들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생산에 기여하고있다.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이 운반거리가 멀고 채굴조건이 불리한 여러 갱들에 대한 조사와 탐측사업을 진행하여 남은 광석을 모조리 캐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모든 갱과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아치고있다. 2중3대혁명붉은기 광명갱과 원동갱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생산가능성을 최대로 리용하여 매일 계획을 125%씩 해제끼고있다.

굴진갱을 비롯한 다른 갱들과 단위들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뚫고나가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광산에서는 광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관심을 돌려 총정의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혁명일화

우리 장군님과 4부자운전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길우에 꽃피난 혁명일화들중에는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다.

15년전 7월 7일 드넓은 대지로 전변된 황해남도 태탄군 류정협동농장의 다네벌에서 있었던 사실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전투에 참가하여 애국충정을 바친 사람들의 위훈부터 먼저 뜨겁게 헤아려주시였다.

그리하여 장풍군 공훈뜨락또르운전수 김범룡동무와 그의 아들인 김영수, 김철수, 김인수동무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집떠나 고생하는 자식을 오래간만에 만나는 혈육의 심정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자애에 넘치신 눈길로 바라보시며 《토지정리에 얼마나 동원되였습니까?》라고 정깊은 어조로 물으시였다.

꿈만 같은 일을 당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며 김범룡동무가 4년동안 동원되였는데 토지정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말수록 대견하신듯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좋은 일입니다. 용습니다.》

나라없던 세월 소경엄마의 손을 잡고 이 골목, 저 골목 동냥길을 헤매이던 김범룡동무가 군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운전수로 자진한것은 고향땅에 제대때낭을 묻 그날부터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 전선을 종횡무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지정리의 포성을 장엄히 울리시였다는 소식은 이들 4부자를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그들은 지체없이 강원도토지정리현장으로 탄원하였다.

강원도토지정리, 평안북도토지정리, 황해남도토지정리…

아버지와 남편의 정을 그리워하고 남자손을 바라는 처자와 멀리 떨어져 일하는 이들에게는 말 못할 가정사정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4부자는 어버이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릴 날만을 손꼽아 세여가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단 하루도 불도젤의 동음을 멈추지 않았다.

쉼지 않은 결심, 힘차게 걸어온 길이 아니였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두달도 아닌 4년세월 자기 집안일보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울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회주의대지를 한치한치 넓혀가는데 자기들 목목히 바쳐왔던것이다.

이들이 걸어온 기쁨과 시련의 무수한 언덕들을 더듬어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불을 안은듯 뜨거우시였다.

너무도 감격하여 그냥 어깨를 들먹이는 그들의 흐느낌소리가 위대한 장군님의 폐부에 파고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쓸어주시며 그만들 하라고, 집을 떠나 몇해동안 다른데 와서 일하는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잘리신 음성으로 거듭 되이시였다.

4부자운전수는 북받치는 오열을 애써 누르며 힘들지 않았다고 떠듬떠듬 말씀올리였다.

왜 힘들지 않았겠소. 참고 견디니 그렇지.

집안의 가장인 김범룡동무가 끝내 비방울같은 눈물을 떨구었다.

나라일을 더 중히 여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순결한 애국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충신들을 한사람한사람 이름까지 짚아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그런 훌륭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기특한 일입니다. 자본주의나라같으면 돈벌이를 위하여 떠돌아다닌다고 하겠지만 4부자가 여러해동안 다른 도에 옮겨가며 토지정리를 하는것은 떠돌이생활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몇해동안 동원되여 일한다고 하여 생활비를 더 주는것도 없지만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도 촉촉한것이 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들이야말로 훌륭한 애국자들입니다.》

한생 무쇠철마를 다루며 흙더미들을 쭉쭉 밀어내던 억대우같은 사나이들이 끝내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대해같은 어버이품에 와락 안겨들며 오열을 터치였다.

《아버지장군님!》

한생 산중에서 산중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꿈과 희망, 사랑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철탑에 고이는 산정의 수리개들과 수력발전소건설자들을 비롯하여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조국을 떠받드는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사려깊이 헤아려주시는 뜻깊은 자리였다.

평범한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 눈물겨운 광경앞에서 일군들도 눈굽을 훔치였다.

4부자운전수와 일군들도 7월의 폭양보다 더 뜨거운것이 가슴에서 이글거리는 격정의 순간이였다.

이 세상 만복을 한가슴에 안은것만 같은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4부자운전수는 가슴들먹이며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다고 거듭거듭 맹세를 다지였다.

헤여지기가 못내 아쉬우신듯 4부자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을 따뜻한 어조로 격려해주시며 토지정리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을 남겨주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4부자운전수들이 자기들이 결의한대로 앞으로도 일을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한 평범한 로동자가정이 걸어온 애국헌신의 길을 옹심깊이 헤아리시여 그늘한점 없는 벌판에 오래도록 서계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다고 늘 외우시며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은 이처럼 걸음걸음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정과 열로 천만의 대오를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이끈 일심단결의 천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떨쳐야 떨수 없는 인연을 맺은 철의 대오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중심으로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있는것이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이다.

본사기자 량 순

미루벌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미루벌은 땅이 척박한데다가 물이 말라 농사를 지을수 없는 곳으로 미루어놓았다고 하여 그 이름도 미루벌로 불리워왔다.

어제날에는 물이 없어 온 동판이 가물에 거북등처럼 갈라터졌고 그러다가도 장마때면 고인물에 잠겨갔은 진흙이 너무 달라붙어 오도가도 못했다는 미루벌이였다.

하지만 미루벌이 안고있던 지난날의 눈물겨운 사연이 오늘날 옛말로 되였으니 풍년가을을 향해 끝없이 설레이는 미루벌의 푸른 벼포기들을 바라볼 때면 이 땅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토지답게 정리되고 여러 지구에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였으며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주체94(2005)년 9월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루벌의 어느 한 협동농장의 밭벼포전을 돌아보시였다.

미루벌에 밭벼포전이 생겨난데는 사연이 있었다.

고난의 행군시기전까지만 하여도 미루벌의 농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가는 곳마다 저수지와 양수장을 만들어놓고 물걱정이 없이 농사를 지어왔다.

그런데 나라의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양수기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다보니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드넓은 논벌을 원만히 적시기가 헐치 않았다.

그래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밭농사에 력량을 집중하는데 그 타개책이 있다고 보고 밭벼생산을 시험적으로 하게 되였던것이다.

밭벼포전을 깊은 관심속에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밭벼를 처음 심었는데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미루벌의 농사에 대해서는 미루벌농민들이 제일 잘 안다고, 농업지도일군들은 농사지도에서 주관주의를 하지 말고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며 그것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품종은 무턱대고 내려먹이지 말고 농민들이 그 우월성을 알고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그이의 깊은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돌미산에 건립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 이르시였다.

미루동판을 개간하여 알곡생산기지로 꾸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루벌에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하여야 하겠다고,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하면 미루벌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물문제를 풀수 있을뿐아니라 숱한 양수기와 전동기를 쓰지 않게 되여 전기도 많이 절약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쳤다. 물걱정이 없이 논농사를 마음껏 짓고싶어하는 미루벌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가 가슴가득 안겨왔던것이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에서 기본은 논벼농사이라고, 미루벌에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하자고 하는것도 결국은 논벼농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힘있게 벌어졌고 미루벌의 물걱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펼쳐진 자연흐름식물길에 실려 영영 흘러가버리게 되였다.

미루벌에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주는 자연흐름식물길!

이것은 진정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놓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였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애국자의 대부대를 키워주신 은혜로운 품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민족만대번영의 최전성기를 펼쳐가는 오늘의 희한한 만리마시대는 애국자들의 활무대이다.

내 불붙는 석탄이 되여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내 한줌 거름이 되여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

창조와 건설의 최성기,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이런 애국의 열정이 8월의 폭양보다 더 뜨겁게 끓어번지고 그 비상한 열의속에 한순간한순간 숭엄히 흐르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평범한 우리 인민모두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고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해 불같이 사는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오늘이 아니던가.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는 애국열풍속에 폭풍노도처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을 말아오른 심장으로 대하며 우리는 조국해방 40돐이 되는 날에 있은 일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바로 이 력사의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과 더불어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기때문이다.

승엄한 격정속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할 업적을 높이 칭송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가이기 전에 열렬한 애국자였다고 값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자란 칭호는 조국과 인민이 자기의 훌륭한 아들딸들에게 주는 값높은 칭호입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애국이란 말을 좋아한다고,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사회제도에 대한 애착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우리 당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사람은 례외없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들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시대의 영웅들은 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들이다.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사람치고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

우리 인민이 걸어온 애국의 로정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추억이 일군들의 폐부에 그대로 흘러드는 순간이였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에서 불타는 애국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과 투신이 곧 우리 장군님의 애국관이였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찬양되는 애국자, 이는 오곡이 대지에 뿌리를 두고 영글어가듯 조국이라는 위대한 존재앞에 자기를 다 바치는 사람, 생의 마지막순간 뒤돌아볼 때 순결한 마음으로 애국위업에 헌신하였다고 량심적으로 총화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애국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이날의 뜻깊은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것도 바로 이 문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터와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이것은 우리 시대의 애국자들이 훼치는 심장의 구호이라고, 말없이 자기 맡은 일을 실속있게 하는 애국자들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열화의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추억속에 영생한 애국자, 청진시 라남구역의 한 오련 상하수도관리공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조국을 어떻게 떠받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참으로 감동깊이 새겨안게 하고있다.

한생 상하수도관리공으로 일한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애칭과 별명이 많았다. 우리 아바이, 호랑이아바이, 구두쇠아바이, 가만아바이…

우리 아바이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데서 부르게 된것이고 호랑이아바이는 일을 되는대로 하거나 슬슬 눈치를 보아가며 일에 몸을 푹 잠그지 않는 사람들을 범처럼 무섭게 다불리는데서 부르게 된것이며 구두쇠아바이는 남달리 공구를 많이 가지고있으면서도 공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 선뜻 내주지 않는데서 생긴 별명이고 가만아바이라는 피상한 별명은 하수도의 보수작업을 끝마치고 파곬을 메면 의례히 《가만…》 하고는 깐깐한 검사공처럼 제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에서 붙은 별명이였다.

아바이가 이처럼 일을 책임적으로, 량심적으로 하였기때문에 그가 참여한 보수대상은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아바이는 늘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땅속에 누워서 욕을 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우군 하였다.

질은 애국의 향기를 풍기는 이 훌륭한 아바이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으로 추억하시는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깨끗한 량심을 지닌 사람이며 당에 충직하고 조국과 인민앞에 성실한 애국자이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상하수도관리공과 같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누가 시킨것도 아니지만 산판에 한정보이상의 양묘장을 꾸리고 산뜩대기까지 물을 길어올려 어린 나무모들을 살리였으며 수천정보의 산을 보물산, 약초산으로 가꾸어 조국의 귀중한 재부를 늘인 애국의 공로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이런 애국자들이 많기에 우리 공화국이 든든하고 위력하다고 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신계군의 공훈산림공,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는 자각으로 안해와 딸 넷을 신발수리초소에 세운 한 전쟁로병의 소행을 료해하시고 공훈련의수리공의 명예칭호도 수여하도록 은정넘친 사랑을 안겨주시고 현대적인 거리에 덤덤한 살림집까지 마련해주신 신발수리공가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의 철의 대오를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한생을 값높이 빛내일수 있었던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샘물은 큰강을 이루어도 맑고 깨끗하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애국의 순간순간이 합쳐져서 애국의 한생이 빛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관에서 순간문제는 매우 심오한 뜻을 담고있었다.

되돌아올수 없는 생의 매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사는데 진정한 애국헌신이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사람은 살아에는 보람있고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고, 살아있는 동안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일분일초를 아껴서 값있게 살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심히, 더 헌신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자!

이런 생의 목표, 행복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애국헌신의 길을 묵묵히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이다.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가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결코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얻어진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위대한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령도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열매이며 그것은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이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란 우리 인민, 자나깨나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우리 원수님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는 애국자들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었기에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인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깊이 새겨주신 이민위천의 뜻

어머니당!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온 나라의 인민들이 터치는 친근한 부름이다.

그 부름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이민위천의 력사를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당의 참모습이 력력히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입니다.》

몇해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과 위인상이 숭엄히 어려왔다.

이민위천, 참으로 숭고한 그 뜻을 평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위대한 수령님.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나올것이 없다고, 나 김정일우에 인민이 있고 김정일은 인민의 아들이라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시며 한평생을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력사로 빛내이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이였다.

고결한 그 뜻으로 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일군들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올랐다.

깊은 감동에 넘쳐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어머니가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듯이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당의 품에 안아주고 장군님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열렬한 인민사랑의 정으로 하여 절절히 울리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 길에서 더 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시며 이민위천의 뜻을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고귀한 지침으로 깊이 간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길에서 다시금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경건히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숭고한 그 뜻을 받들어 인민의 충복,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한생을 빛내일 결의가 더욱 불타올랐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꼬뜨디봐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비쟝

꼬뜨디봐르공화국 대통령

알라싼 우아따라 각하

나는 꼬뜨디봐르독립 5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가일층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8월 7일 평 양

박봉주총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가 충정의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비료생산으로 들끓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터전을 잡아주시고 굳지의 대화학공업기지로 전변시키주신 기업소는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농업전선에 한약을 공급해주는 병기창,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병기창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총리는 봉한생산공정, 원료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시비년도비료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당 제7차대회 정신을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화학공업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는데서 기업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였다.

설비보수를 앞세워 비료생산을 늘이며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화,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총리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인발강관직장과 보산제철소 회전로들을 돌아보고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다 강화하며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치사업을 하였다.

박봉주총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현지료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브라질련방공화국 림시대통령을 만났다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5일 미쉘 떼메르 브라질련방공화국 림시대통령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미쉘 떼메르 브라질련방공화국 림시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최룡해동지가 정중히 전하였다.

미쉘 떼메르 림시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브라질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미쉘 떼메르 림시대통령은 브라질정부가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날 최룡해동지는 스위스련방, 싼 마리노공화국의 국가수반들과 앙골라공화국, 적도기네공화국, 잠비아공화국의 부대통령들을 각각 만났다.

최룡해동지가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관계인사들을 만났다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가 4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리오 데 자네이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지도부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 파견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정부가 체육강국을 목표로 체육발전에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리오 데 자네이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정부가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 매우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경기대회에서 조선의 체육인들이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은 조선고위급대표단의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참가는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 체육인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려는 조선정부의 의지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개건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보배공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성합성가죽공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설같은 인민사랑을 빛내여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성합성가죽공장에 뜻깊은 령도의 자욱을 남기신 그날부터 20여일이 지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을 감회깊이 추억하고있다.

소문도 없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공장의 일군들은 한없는 격정과 흥분으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공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깨끗하고 번듯하게 개건공사를 정말 잘하였다고, 걸만 보고서도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공장을 찾으시여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려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절사관철의 정신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평성합성가죽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신발과 가방을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일떠선 나라의 보배공장이다.

우리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풀기 위하여 몸소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설비들도 하나하나 갖추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이름도 지어주시였으며 백수십차의 교시를 주시면서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하는 합성가죽생산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나라의 합성가죽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주체100(2011)년 10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은 현대화목표를 점령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발을 비롯한 인민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질좋은 신발과 가방, 혁띠, 잠바 등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용품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자면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첨단수준의 습식수지도로생산공정과 현대적인 부직포생산공정을 새롭게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공장을 현대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이 있었기에 공장은 오늘도 나라의 보배공장으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고있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사랑속에 이 공장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나라의 보배공장으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진문헌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였다고,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살하여 공장로동계급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깊이 관심하시고 중시하신 공장에서 일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며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직포생산공정, 건식합성가죽생산공정, 습식합성가죽생산공정, 가방생산공정,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몸소 마련해주신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부직포생산설비들과 습식합성가죽생산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있을뿐아니라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김과 구부림세기 등 물리적성질이나 질감에 있어서 천연가죽에 못지 않은 질좋은 합성가죽을 생산하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바쳐가고있으며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여러가지 가방을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일데 대한 문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다색화, 다양화된 세계적수준의 합성가죽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생산과 경영활동의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며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며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조건과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을 몸소 찾아주시고 그처럼 온갖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며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나라의 경공업을 하루빨리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활짝 꽃피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빛나는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유훈관철을 첫자리에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공장과 일터, 거리와 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자기 단위와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면서도 먼 앞날에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크나큰 감격과 환희를 안고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자기들의 일터를 제힘으로 보란듯이 꾸려온 창조의 나날들을 다시금 긍지높이 되새겨보았다.

몇해전 공장을 몸소 찾으시여 공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남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사랑의 전설을 길이 빛내여갈 일념안고 개건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리수웅, 홍덕수, 리의선동무들이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갖추는데 맞게 자체의 힘으로 모든 진물들을 현대적으로 일신시킬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새로 꾸리며 낡은 건물들을 통째로 들어내고 번듯하게 다시 일떠세우기 위한 개건공사가 즐기차게 벌어졌다.

녀성종업원이 적지 않은 실정에서 로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이들은 제힘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보란듯이 전변시킬 열의밑에 헌행생산을 다그치는 동시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건설전투를 치렬하게 벌리였다.

1직장의 리춘룡, 한명익, 리종호동무들이 건물해체와 기초파기, 콩크리트치기과제를 두몫, 세몫씩 해제끼였으며 리순철, 윤창근, 석금철, 전금룡, 김영원동무들이 설비운반과 조립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개건공사의 주력을 이룬 2직장의 김룡권, 홍리환, 김광일, 김명복, 김문찬, 리광우, 리윤성동무들이 어렵고 힘든 작업과제들을 솔선 도맡아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처음 해보는 건설이라 손에 선 일도 많았고 피로로 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방생산단위의 녀성종업원들과 조리식동무를 비롯한 보장부문의 사무원들도 건물타일붙이기와 울타리개건을 비롯한 건설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우리의 힘으로 더 좋은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불타는 일념안고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건설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마침내 전변의 자랑찬 새 모습이 펼쳐지게 되였다.

오늘 공장에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이 새로 정중히 꾸려지고 부직포와 가방생산, 습식 및 건식합성가죽생산건물들은 물론 연건축면적이 수천㎡에 달하는 실험실과 자동화실, 실계실과 공업시험소, 생산지휘실과 과학기술보급실도 현대적으로 개건되였다.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 구내식당 등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지고 공장구내의 수림화, 원림화도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실현되였다.

제힘으로 안아온 전변의 새 모습이여서 그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일터를 증산성과로 더욱 빛내이며 평성합성가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 좋은 래일을 향해 즐기차게 비약해나가고있다.

기술전, 두뇌전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자강력제일주의를 원숭의 보검으로 간직한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기술전, 두뇌전도 우리식의 창조방식과 투쟁본때로 즐기차게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일군들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현대화공사를 밀고나가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합성가죽의 질을 더욱 높이며 종전의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갔다.

용매회수공정의 건설과 건식합성가죽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벌어질 때였다. 일부 사람들이 기존방식에만 매달리면서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도입에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사상전, 두뇌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직장장 김에원동무와 용매회수작업반의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3직장의 전투원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뽐프장위치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폐액려과공정을 새롭게 배치하며 물탱각탑과 증발기, 각종 관실치에 대담한 공법들을 련속 받아들이였다.

특히 설비조작방법을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개조하여 예정보다 공사기일을 두달이나 앞당겨 끝내면서도 용매회수기일을 기존방식보다 1/3로 앞당기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이들은 자동화실의 기술자들과 함께 기발하고 독특한 착상들을 련이어 받아들이면서 열풍량의 합리적인 조종과 부직포의 련속맞물림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종전보다 로력을 절반이나 절약하면서도 합격품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동화실의 김대규, 강인건, 전남혁동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열처리설비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며 건식생산공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발하였다. 안정철, 한경일, 리용서, 김정철, 리명일동무들 비롯한 공업시험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질좋은 비로도가죽을 만들어내고 수십가지의 색갈과 무늬, 광택을 띤 합성가죽들을 제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해섬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의 조작반들을 수자식으로 개조하고 건조로형식의 열용착설비와 순환비등층보이라를 받아들이며 90여개의 자동화요소들을 새로 설치하여 통합생산체계구축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처럼 남들이 백걸음, 천걸음에 도달한것을 한걸음에 뛰여넘으며 기어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더 훌륭한 설비와 제품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정신적강자들의 완강한 두뇌전, 실력전앞에 비약의 대통로는 보기 좋게 열리였다.

목표는 최첨단, 창조는 우리식대로!

바로 이런 높은 로부와 참신한 투쟁기풍을 지니고 첨단돌파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창조와 비약의 함길을 따라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 현지보도 ‖ 다색화, 다양화된 제품들이 쏟아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충정의 200일전투로 들끓는 합성가죽생산전투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총궐기해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색화, 다양화된 제품마다에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며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1직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만부하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려간다. 해섬기안에서 흰 목화송이마냥 한껏 부풀어오른 합성섬유들이 정량공급기와 소면기를 차례로 거쳐 바늘다짐설비로 향한다. 수많은 바늘들이 우아래로 쉼없이 오르내리는 속에 맞은켠에서는 합성가죽의 바탕재인 부직포가 완성되여 펼쳐짐이 감지된다. 혁신자로 소문난 기대공 문춘남, 송광호, 김철민동무들이 각종 수자식조종반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일별계획을 13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3직장의 종업원들이 독특한 부직포롤구리들이 와닿는족족 흐름식으로 된 생산공정들에 련속 맞물린다. 고급기능공인 김정철동무가 습식생산공정에서 로라들을 타고 흘려나가는 부직포에 침지기와 정밀도포기로 수지액을 입혀 한m한m 합성가죽을 제조해낸다.

건식생산공정에서 면제호, 김순남동무가 도포와 건조, 접합공정을 거쳐 합성가죽의 여러가지 무늬들을 완성해나갈 때 김광만동무를 비롯한 도포액작업반의 종업원들도 20여가지의 색갈고운 합성가죽들을 제작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한다.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이들의 얼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에 안고 갖가지 질좋은 합성가죽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백두산친솔위인들의 전설같은 인민사랑을 길이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가 한껏 비껴흐르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물리적성질과 질감에서 비로도나 천연가죽에 못지 않은 질좋은 합성가죽을 수십가지 색갈과 무늬로 제작하여 구두공장과 체육기자재공장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단위들에 보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전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200일전투에서 남먼저 통장훈을 부르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 합성가죽생산량을 종전보다 근 6배로 늘여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어이 충정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리수웅동무가 패기와 열정에 넘쳐 보탬의 명세를 더더욱 가다듬는다. 이에 화답하듯 생산공정마다에서 다색화, 다양화된 합성가죽들과 가방들이 련속 쏟아져나온다.

새로운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공장에 시간이 흐를수록 증산의 동음이 더욱 힘차게 울려퍼진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드높은 열의 ‖

200일전투장들에서 발휘되는 청년들의 영웅적기개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전위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시대의 력사적진군에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전위들의 힘찬 발구름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200일전투의 전렬에 우리가 서자!

이것이 바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서 터져오르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청년대군의 무한대한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갈 각지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하여 지금 대고조격전장들은 그 어디나 청년판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의 생명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청년들의 첫째가는 생명이며 빛나는 전통이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충정의 200일전투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청년들속에 깊이 심어주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사업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평안남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공사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주 1차이상 파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의 기본사상을 청년들속에 깊이 해설해주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모두가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당정책관철전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중순 천리마대고조시기 선구자들의 투쟁자료들을 아래조직들에 내려보내주고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전세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충정의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만리마기수의 영예를 높이 떨칠 굳은 결의를 다지도록 하였다.

평양시 중구역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6월초부터 평양어린이옷공장을 비롯한 6개 단위들에 나가 청년들속에 당 제7차대회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김형직사범대학 청년동맹조직에서는 분단식학습경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 제7차대회보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학생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가 더욱 고조를 이루는 속에 평안북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남포시, 철도성, 문화성을 비롯한 각급 단위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동맹원들을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선군조선의 참된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드세차게 들이대고있다.

집중적인 사상공세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더욱 승화시키고있다.

은산군청년동맹위원회 일군인 조일광동무는 지난 6월초 어느 한 집에서 뜻밖의 화재가 일어난것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홍남제련소 3대혁명소조원들인 장충일, 문철, 김책고치생산단위들에 나가 청년들속에 당 제7차대회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김형직사범대학 청년동맹조직에서는 분단식학습경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 제7차대회보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학생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고있다.

위훈은 우리의 이름

200일전투의 낮과 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으로 아로새겨가는 우리 청년들의 자랑찬 투쟁소식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전장들을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사리원방직공장 직포공 김은하동무를 비롯한 3명의 청년들은 충정의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만리마기수가 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정량보다 더 많은 10여대의 직기를 다루면서 지난 6월말까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으며 애국모란피복공장 로동자 전수련동무는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아 긴장한 철야진군을 벌려 6월 생산계획을 160%로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수산관리국 룡암포수산사업소와 남포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의 처녀어로공들은 앞선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항차당, 기망당 어획량을 늘이기 위한 청년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지난 6월 30일까지 년간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춘, 그것은 단순한 생의 젊음이기 전에 투쟁이고 위훈이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회안탄광 김혁청년돌격대 대장 홍명성동무를 비롯한 8명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7월 13일 전투를 진행하던중 뜻밖에 일어난 붕락사고로 하여 막장속에 갇힌 상태에서도 굴진전투를 멈추지 않고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근 9시간동안 수굴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그날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전력생산을 늘이고 발전설비들의 막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쟁과 청년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1호보이라대보수를 위한 연재 및 오물처리를 와닥닥 끝내고 태보수기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청년분조원들은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정상화하면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집단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난 7월초까지 네벌김매기를 앞당겨 끝내였으며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불같은 열의밑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성과들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도 청단들과 전을 벌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첨단과학기술통보, 경험교환 등의 방법으로 창조적지혜를 합쳐 지난 6월 10여종의 정보기술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설계를 끝내였으며 짧은 기간에 제품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진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밖에도 류원신발공장, 개성송도식료공장, 단천세멘트공장, 력성군 력성초물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청년동맹원전원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둔것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청년들속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위훈의 창조자들이 수많이 때출되여 비약하는 조국의 거세찬 진군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미풍은 우리의 생활

우리 청년들은 고상하고 문명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혁명적인생관의 체현자들이다.

충정의 200일전투와 더불어 청년들속에서 미풍소유자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연풍탄광 채탄공이였던 조규남동무는 지난 6월초 갱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던중 천정에서 버럭덩어리가 떨어지는 위급한 순간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되는 조선청년의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원광산기계공장 조형작업반 로동자 서일동무는 지난 6월 중순 공장발전소건설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죽우로 불어난 덕지강을 무려 7번씩이나 넘나들면서 기계설비들을 운반하던중 세찬 물살에 휘말려 최후를 마치였다.

토산군안의 수십명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은 지난 6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온 한 학생에게 많은 량의 피를 수혈해주고 서슴없이 피부를 이식해주는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였다.

정주철도분국 맹중역 전철원 김철성동무는 지난 6월말 물에 빠진 학생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뛰여들어 구원하였으며 의식을 잃은 그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소생시키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였다.

범동군 범동고급중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책임지도원 리태철동무는 국가적명절들과 기념일마다 특류영예군인의 가정을 찾아 여러가지 보약들과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고무해주고있으며 금야군 룡성농장 농장원 현충룡동무는 지난 6월초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친부모의 사랑으로 돌봐주고있다.

이밖에도 삼지연군을 전국의 본보기로 꾸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호응하여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에 탄원하고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미풍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생활로 되여 충정의 200일전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이렇듯 충정의 200일전투장들마다에서 발휘되고있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의 투쟁기풍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는 청년들모두를 시대의 영웅, 만리마선구자들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일대 과시로 된다.

본사기자 윤명철

누리를 진감하라, 태양조선의 교향악이여!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국립교향악단이 새겨온 70년의 연혁사를 펼치며

교향악단은 나라와 민족의 자랑이다. 음악을 사랑하고 시대의 교향악높이 혁명의 록풍우를 헤쳐온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국립교향악단은 더없는 긍지이며 선군조선의 재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립교향악단은 당과 수령을 받들고 따르는데서 훌륭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올해 8월 8일은 국립교향악단창립 70돐이 되는 날이다.

국립교향악단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첫 연주로 창립을 선포한 우리 나라의 원로예술단체이다. 창립당시 1관현성이였던 국립교향악단은 세계적인 3관현성관현악단으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조선의 넋과 기상이 나래치는 기념비적인 평작들을 줄기차게 올려가는 혁명적인 예술집단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것은 오직 절세의 위인이시며 음악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절출한 령도의 손길아래 자라난 국립교향악단만이 이룩할수 있는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국립교향악단의 70년력사가 그렇듯 의의깊고 빛나는것이다.

국립교향악단이 창립된 주체35(1946)년은 그야말로 사변의 해였다. 이해 3월부터 7월사이에만도 토지개혁법령,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여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바로 이해의 8월 8일 해방조선의 예술인들은 크나큰 경사를 맞이하였다. 력사의 그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되는 중앙교향악단(당시)의 창립공연이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식민지노예의 명에를 벗어던진 극적인 운명전환에 이어 조선의 음악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공연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관현악단이 없었다.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중앙교향악단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흩어져있던 음악가들을 평양으로 불러주시였다. 음악가들을 새 조국건설의 당당한 역군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우리 음악을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숭고한 의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침내 중앙교향악단이 조직되게 되였으며 창립공연의 막이 오르게 되였던것이다.

교향악단연주가들은 첫 연주곡으로 전체 조선인민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있게 울리였다.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예술인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중앙교향악단의 창립은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발전에서 하나의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선의 음악예술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였다.

우리 말과 글뿐아니라 음악까지도 짱그리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던 일제의 폭압아래서 신음하던 우리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는 생명수였고 심장에 불을 다는 횃불이였다. 국립교향악단의 탄생, 이것은 그대로 해방된 조선이 음악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며 민족의 넋과 기개가 반영된 우리 식 음악을 창조해나갈것을 선언하는 일대 사변이였다.

국립교향악단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고고성을 터치였다. 국립교향악단에 대한 각별한 정을 안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애국가의 첫 연주도 악단에 맡겨주시였으며 국가적인 공연들도 진행하도록 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밑에 국립교향악단은 조국과 혁명에 이바지하는 무기로 위력떨치게 되였으며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음악로성을 황황 울릴수 있었다.

미제에 의해 전쟁이 발발되였을 때 외국공연중에 있던 교향악단의 예술인들은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은 우리가 이기니 아무 근심말고 공연을 계획대로 끝내고 돌아올것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도록 하시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예술인들을 더없이 사랑하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은 예술인들은 외국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즉시 공화국남반부의 도시와 마을들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정열에 넘쳐 연주하였다.

그 나날 해방된 남녘땅에서 불멸의 혁명송가를 격정속에 부르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며 예술인들은 민족의 태양을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음악가의 삶이 꽃펴나고 위대한 음악이 창조된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명한 령도를 장장 수십년세월 받으면서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온넋으로 절감한 철리이다.

국립교향악단의 70년력사에는 음악예술의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향악단을 3관현성관현악단으로 조직해주신 뜻깊은 날이 아로새겨져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3관현성관현악단은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여있었다.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로 빛나는 우리 조국에 세계적인 대규모 3관현성관현악단을 꾸리실 웅지를 품으시고 그것을 현실로 펼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원래 나라의 국력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간주되여온 3관현성관현악단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는것은 웬만한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9(1970)년 1월 26일 국립교향악단을 3관현성관현악단으로 조직해주시였으며 악단이 틀어쥐고나아갈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교향악건설사상은 교향악을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민요와 인민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명곡을 편곡하는 원칙에서 발전시키며 양악기를 조선음악에 복종시키고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하는것이였다.

교향악을 민족의 고유한 음악유산들과 시대의 명곡을 토대로 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세의 위인의 독창적인 사상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헌신에 의하여 이 땅에는 주체교향악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교향악의 유럽중심설에 종지부가 찍혀지는 력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훌륭한 교향악을 안겨주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정녕 그 얼마인지 모른다. 매일이다싶이 3관현성관현악단을 찾아주시던 그 나날 깊은 밤, 이른새벽에 창작가, 연주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기를 그 몇번, 연주가들의 음악을 열번, 스무번 듣고 또 들으시며 민족악기들을 배합하여 양악기로는 흉내도 낼수 없는 우리 식의 독특한 울림을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그 손길에 이끌려 국립교향악단은 남들이 몇십년을 거쳐 이룩한 성과를 짧은 기간에 비약하며 주체교향악의 씨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국립교향악단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에 기초하여 창조한 교향곡 《피바다》 그리고 관현악 《그네뛰는 처녀》, 《내 고향의 정든 집》,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도라지》를 비롯한 작품들은 울려퍼지자마자 천만심장을 격동시키였다. 국립교향악단은 내 조국만이 아닌 행성에 주체교향악열풍을 휘몰아쳐갔다.

《세계1류급의 교향악단》, 《민족음악을 바탕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인 교향곡》, 《도이췰란드땅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조선국립교향악단》, 《조선의 음악예술을 따라배우자!》…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주체교향악에 대한 세찬 반향은 주체적교향악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에 대한 찬사였으며 문학예술의 거장을 높이 모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부러움과 경탄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국립교향악단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물론 새 세기에도 선군조선의 교향악을 높이 울릴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립교향악단의 3관현성관현악단을 《세계1류급의 교향악단》, 《민족음악을 바탕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인 교향곡》, 《도이췰란드땅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조선국립교향악단》, 《조선의 음악예술을 따라배우자!》…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터져나오는 주체교향악에 대한 세찬 반향은 주체적교향악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에 대한 찬사였으며 문학예술의 거장을 높이 모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부러움과 경탄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국립교향악단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물론 새 세기에도 선군조선의 교향악을 높이 울릴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립교향악단의 3관현성관현악단을 조직해주시여 더욱 억세여지였다.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립교향악단의 3관현성관현악단에 그토록 품을 들이고 따뜻한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신것은 무엇이였던가.

국립교향악단의 혁명사적교양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30여년세월이 지난 후에 몸소 보아주신 사진문헌이 있다. 그 사진문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0년대에 외국공연을 떠나는 국립교향악단 성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바래워주시는 사진문헌이다.

뜻깊은 사진문헌을 우러르며 지금도 교향악단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예술인답게 우리 수령님의 권위를 교향악으로 만방에 떨치고 돌아와야 한다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흥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규모와 내용, 연주실력에 있어서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우리 교향악단이 외국의 무대들에서 주체교향악의 위력을 과시하였을 때에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 기쁨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관현성관현악단 동무들을 자신께서는 제일 사랑한다고, 동무들은 주체교향악을 떠메고나갈 기둥이라고 최상최대의 믿음을 함께 첫 연주를 무슨 작품으로 하는가 하는것을 두고 예술인들은 적지 않게 론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처음으로 조직되는 중앙교향악단에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연주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주체35(1946)년 6월 어느날 몸소 시청회를 지도해주시였다.

감격의 그날 교향악단의 예술인들은 불멸의 혁명송가를 최상의 수준에서 연주하도록 지도해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의 모습에서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받아안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손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울려야 한다는것을 뜨겁게 새긴 예술인들이였기에 전쟁시기에도,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다하여 불붙을 가림없이 따라나섰다. 하여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무대예술부문에서 첫 천리마작업반칭호를 수여받게 되였다.

이렇게 시작되고 이어진 국립교향악단의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3관현성관현악단을 조직해주시여 더욱 억세여지였다.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립교향악단의 3관현성관현악단에 그토록 품을 들이고 따뜻한 정을 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신것은 무엇이였던가.

국립교향악단의 혁명사적교양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30여년세월이 지난 후에 몸소 보아주신 사진문헌이 있다. 그 사진문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0년대에 외국공연을 떠나는 국립교향악단 성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바래워주시는 사진문헌이다.

뜻깊은 사진문헌을 우러르며 지금도 교향악단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예술인답게 우리 수령님의 권위를 교향악으로 만방에 떨치고 돌아와야 한다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흥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규모와 내용, 연주실력에 있어서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우리 교향악단이 외국의 무대들에서 주체교향악의 위력을 과시하였을 때에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 기쁨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관현성관현악단 동무들을 자신께서는 제일 사랑한다고, 동무들은 주체교향악을 떠메고나갈 기둥이라고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지 않았던가.

주체교향악의 전성기와 함께 강화발전된 국립교향악단의 력사는 수령을 받드는 혁명적신념이 굳건해지고 혁명적의리가 깊어진 나날이였다.

국립교향악단의 70년력사에는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3관현성관현악단을 수호한 승리의 력사로 아로새겨져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은 국립교향악단에도 덮쳐들었다. 그러나 죽어도 지울수 없는 신념의 글발을 심장에 쪼아박은 이들이였다.

나는 3관현성관현악단 동무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당과 수령을 받드는 길에 신념의 기둥이 쥐어지지 않는 혁명가가 되고 전우가 되자는 우리 장군님의 동지적 사랑과 믿음이 그 한자한자에 피줄처럼 흘렀다. 그 믿음은 수천의 식량에도 비할수 없는 힘을 주었다.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그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전4악장으로 된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를 짧은 기간에 걸작으로 창조하였으며 교향곡 《경례를 받으시라》, 관현악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명작들로 주체교향악의 로성을 힘차게 울리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국립교향악단 전체 성원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아 악단의 지휘자와 작곡가는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두통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따뜻한 봄날 동무들의 극장에 가서 공연을 쭉 보겠다고, 동무들의 공연이 보고싶다는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수령과 전사는 비록 떨어져있어도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혈연의 정은 강철의 뉴대로 굳건해지였던것이다.

혁명의 길에서 뜻을 주고 정을 주신 전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주체93(2004)년 12월 3일 모란봉극장을 찾으시여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그후에도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여러차례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아주 잘한다고, 마치 군단포를 쏘는것 같다고 하시였으며 세계에 제노라고 하는 교향악단이 많지만 우리 나라 국립교향악단만큼 연주수준이 높은 교향악단은 얼마 없다고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온 국립교향악단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정은 정녕 끝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은 어려운 시기에 제살궁리를 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연주수준을 높여왔다고 하시며 정말 믿음이 가는 예술단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악단이 공연활동을 벌리고있는 모란봉극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시였으며 백수십벌의 연주복도 마련해보내주시는 사랑의 전설도 수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8(1969)년 3월부터 주체100(201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국립교향악단에 귀중한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신것만 하여도 무려 십여차에 달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악기는 국립교향악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선군사상의 불패성과 주체음악예술의 위력을 떨쳐가는 혁명의 무기였다.

세상에 다시없는 혁명의 무기—사랑의 악기와 함께 장장 수십년세월 당과 수령을 교향악으로 받들어온 국립교향악단은 김일성훈장을 두차례나 수여받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지금 국립교향악단의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한 영광의 그날을 잊지 않고 전국의 초행길에서 시작된 총정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갈 불타는 맹세를 굳게 다지고있다.

※ ※

오늘 우리 조국은 최후승리를 향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격동의 이 시대에 문학예술부문은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에서는 천만심장에 불을 다는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리고있으며 문학예술부문 어디서나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갈 불같은 열의로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령도하시는 속에서도 나라의 교향악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조한 작품들을 지도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금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의 슬하에서 예술활동을 벌려가는 끝없는 긍지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주체교향악의 승리와 영광의 전통은 만리마시대에 더욱 줄기차게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차 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7일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탁월한 사상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여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몽골방문 60돐에 즈음하여

울란바따르에서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몽골방문 60돐에 즈음하여 1일 울란바따르에서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조선의 현실을 소개하는 우리 나라 도서들, 활짝 핀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몽골 김정일화협회, 유목민발전지지 즈, 쌈부기금,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주체연구쎈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 김정일화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가족에게 돌려주신 은정깊은 사랑에 대하여 회고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의 영원한 상징인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더 잘 키우고 김정일화전시회를 더 훌륭히 진행하며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몽골인민들에게 적극 소개선전할것이다.

유목민발전지지 즈, 쌈부기금 총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몽조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였다.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지도리사회 성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선군사상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게 하는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조선은 대국들과 적대세력들의 압력과 간섭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의 길,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국립교향악단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국립교향악단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7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박춘남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국립교향악단과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국립교향악단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해방된 조국의 첫 예술단체로 무어주시고 세계적인 관현악단으로 꾸려주신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며 주체교향악과 음악예술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술창조집단이라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8월 8일 국립교향악단을 몸소 조직하여주시고 음악예술인들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으며 많은 악기들과 귀중한 자금을 보내주시면서 국립교향악단이 새 조선의 문화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향악을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민족악기를 배합한 3관현성의 관현악단을 친히 꾸려주시였으며 무려 187차례나 창조현장에 나오시여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교향악, 배합관현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국립교향악단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첫 연주로 자기의 창립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년간 혁명적인 창작창조활동과 시대를 대표하는 명작들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왔으며 사회주의조국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국립교향악단에서는 혁명의 년대기마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의 교향곡과 관현악곡을 창작공연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불러일으켰으며 교향련곡 《당에 드리는 노래》를 비롯한 기념비적작품들을 창작형상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 우리 당과 공화국의 투쟁사를 후세에 길이 전해가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간직하고 혁명적인 창작공연활동으로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위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전지를 다지는데 공헌한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단장 장조일의 기념보고에 이어 부단장 정일산, 부장 겸 작곡가 조광, 연주가 최기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립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명작창작으로 수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여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칭송하는 송가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창작형상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주는 명작창작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교향악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창작적기량과 연주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며 당면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몽골방문 60돐에 즈음하여

울란바따르에서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몽골방문 60돐에 즈음하여 1일 울란바따르에서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주체조선의 현실을 소개하는 우리 나라 도서들, 활짝 핀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몽골 김정일화협회, 유목민발전지지 즈, 쌈부기금,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주체연구쎈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몽골 김정일화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가족에게 돌려주신 은정깊은 사랑에 대하여 회고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의 영원한 상징인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더 잘 키우고 김정일화전시회를 더 훌륭히 진행하며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몽골인민들에게 적극 소개선전할것이다.

유목민발전지지 즈, 쌈부기금 총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몽조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였다.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개막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가 5일 브라질의 리오데 자네이로의 마라까나경기장에서 개막되였다.

브라질림시대통령 미셸 메메르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브라질국가가 주악되고 국기가 서서히 게양되였다.

경기장에 브라질의 력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공연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207개 나라와 지역의 1만 1,000여명의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우리 나라 올림픽선수단이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며 경기장에 들어섰다.

리오 데 자네이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말언에 이어 브라질림시대통령이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개막을 선언하였다.

올림픽찬가가 울려퍼지는 속에 올림픽기발이 게양되고 올림픽선서가 진행되였다.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올림픽성화를 이어받은 봉화수들이 경기장안에서 마지막 이어달리기를 하여 봉화대에 불을 지피였다.

봉화대에서 불길이 솟구쳐오르고 축포가 터져올랐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28개 종목의 306개 세부종목경기가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로씨야에서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방문 15돐에 즈음하여 하바롭스크시에 있는 로병회관에서 3일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날로 비약하며 발전하는 주체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로씨야 하바롭스크변강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하바롭스크변강 립법회의 의장인 통일로씨야당 하바롭스크변강지역 정치리사회 비서 루콤스꼬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하바롭스크방문은 조선인민뿐아니라 변강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여러차례의 로씨야방문을 통하여 전통적인 로조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하바롭스크변강정부와 인민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조를 확대함으로써 조선과의 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할것이다.

조선인민이 자기 지도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더 밝은 미래와 행복, 평화를 성취해나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하바롭스크변강정부 교육과학상 꾸즈네쪼바는 전람회를 통해 후대들에 대한 조선지도부의 깊은 관심과 배려, 조선의 창창한 래일을 잘 알수 있다, 새 세대들의 행복한 모습은 곧 해당 나라와 민족의 더없는 긍지이며 번영의 기초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보살피심속에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자라나는 조선어린이들이 반드시 앞날의 애국자들로 성장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에서는 백두산혁명고향집,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는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공고히 다져간다

—원산수산대학 한광명 본사기자 씀—

실험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순천구두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구두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기 단위의 기술발전계획수행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3대혁명소조원들인 리철진, 김철성, 박명일, 차은경, 김광천, 리봉학, 정경일, 정혁일동무들은 신발창생산의 주요설비인 성형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이들은 부족되는 자재와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실패에 주저를 모르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때로는 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해 수십리길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많은 기술문헌자료들을 연구하며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리하여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끝내 성형기를 완성하여 공장의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로농통신원 장정숙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킨다

려명거리건설장에서

빈틈없이 작전하고 창조적으로 실천할 때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기개와 위력을 떨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는 지난 시기 훌륭히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린 부대이다.

이번 려명거리건설에서 이 부대가 맡은 건설대상은 덩지큰 20층, 30층짜리 고층살림집들이다. 이로 하여 살림집건설에 적지 않은 로력이 요구되였다. 그런데 공사초기 이곳으로 달려나온 김동춘소속부대 아래 여러 시공단위들중 건설경험이 있는 단위는 오직 한개 부대뿐이였다. 경험이 있는 건설력량이 심히 부족되였고 건설을 해보지 못한 군인들도 적지 않았다.

탑이 정해준 시간에 탑이 바라는 높이에서 건설물을 훌륭히 완공하자면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함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것이 필요했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며 건설에서의 최량최방안을 적극 탐구동원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에 접한 부대지휘관들은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맡겨진 공사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였다.

하다면 부대지휘관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살림집공사를 밀고나가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어떻게 짜고들었는가.

무엇보다도 부대당조직에서는 공사에 진입하기에 앞서 모든 군인들이 건설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건설경험이 없는 군인들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이것은 사활적인 요구가 아닐수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이 바로 권위있는 과학자, 연구사들을 여러 부대들에 초빙하여온것이다. 과학자, 연구사들이 용접, 휘틀조립, 콩크리트혼합비률 등 건설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군인들에게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전투현장들은 말그대로 대학의 강의실들을 방불케 하였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부대에서는 지휘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지식강습들을 산하 부대별, 구분대별로 련이어 조직하였다. 부대건설지휘부성원들도 례외가 아니였다.

그들부터가 건설지식들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있어야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수 있다는것이 부대책임일군들의 립장이였다.

이렇게 공사에 진입하기에 앞서 부대지휘관들이 사전작전을 짜고드는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구체적실정에 맞는 창조적실천이다.

부대지휘관들은 공사시작부터 방송선전차를 통한 기술학습과 통보사업을 정상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수시로 변하는 건설장의 정황에 맞게 철근가공속도를 높이고 앞선 휘틀조립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혼합비률을 철저히 지키는 등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군인건설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사업도 부단히 내밀었다.

특히 시공의 전문화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모든 병사들을 공정별로 나누어 합리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매 병사들이 자기 맡은 공정을 최단기간에 파악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이런 사업들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동시에 밀고나가니 공사실천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초공사때 공정별전문화가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골조공사에로 이행하면서부터는 철근조립, 휘틀조립, 혼합물타입 등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특히 골조공사에 진입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벽체와 층막을 동시에 타입하여 한꺼번에 한개 층을 통채로 시공하게 되였다. 부대에서는 골조공사시 제일 어려운 작업과제였던 외벽휘틀조립에도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골조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이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은 날로 커만갔다. 병사들은 지휘관들과 함께 설계도면과 공법상요구를 깊이 연구하는데 큰 힘을 넣고 호상 진지한 토론도 벌리였다.

그 과정에 급배수관, 전기공사 등의 작업을 립체적으로 내밀기 위한 방도도 적극 탐구되였다.

부대지휘관들은 공사단계별로 력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필요한 대상에 대한 력량의 집중과 분산을 적절히 배합하여 전투조직과 지휘를 보다 짜고들었다. 결과 20층과 30층고층살림집골조공사를 거의 동시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과학기술의 봉마를 타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만리마속도로 일떠세우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도 이렇듯 앞장에 서있다.

맡겨진 공사과제수행을 위해 언제나 빈틈없이 작전하고 창조적으로 실천해나가며 날마다 눈에 띄는 성과를 안아오고있는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사업경험은 참으로 시사해주는바가 크다.

낡은 틀을 깬 새 휘틀조립공법

조선인민군 궁호식소속부대에서

려명거리건설장에 가면 특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전투장이 있다. 조선인민군 궁호식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맡은 대성51-43호동 55층초고층살림집건설장이다.

리유가 있다. 사실 려명거리건설에 진입한 초기까지만 하여도 부대에서는 뚜렷한 공사실적을 내지 못하고 3~5일동안에 한층씩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던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얼마되지 않아서부터 18시간동안에 한개 층의 골조를 올려 사람들을 놀래웠다. 특히 7월에 들어와서는 그 기록을 또다시 5시간이나 단축하여 13시간동안에 한개층의 골조를 완성함으로써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드디여 지난 7월 16일 55층초고층살림집골조우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야말았다.

그 비결에 대해 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합리적인 공법들을 창안, 도입하던 과정에 있은 사실들을 자주 외우군 한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종전의 낡은 틀을 깨고 자체로 창안도입한 새로운 휘틀조립공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최신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부대가 맡은 초고층살림집은 그 구조가 독특하고 형식이 다양한 8면체모양이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공사초기 휘틀고정이 힘든 요소들이 적지 않았고 휘틀조립시 수직, 수평상태를 정확히 유지하는데도 곬이 많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휘틀조립공법을 바꾸어야 하였다. 지휘관들은 병사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병사들속에서 쇠바줄과 조임나사를 리용하여 휘틀들을 여러 지지점들에 튼튼히 고정시킬수 있는 기발한 착상들이 나왔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부대지휘관들은 토의를 더욱 심화시켜 간혹 지지점들이 움직여 조립된 휘틀들의 위치가 변할수 있는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타산해나갔다. 결국 병사들의 착상과 지휘관들의 지혜가 합쳐져 지지점들이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지게 되였다.

그에 근거하여 부대에서는 종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휘틀조립공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새 공법의 도입으로 시공의 질이 철저히 담보된것은 물론 원래의 휘틀조립때보다 공정이 간단하여 휘틀조립속도는 3배나 높아졌다.

부대장병들은 공사에서 제기될수 있는 정황들을 알짐리 내다보면서 압송기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판배치도 새롭게 하였다. 자동철근인장절단기의 틀을 자체로 제작하여 그 수명을 10배이상이나 늘인것을 비롯하여 이들이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자체로 착상, 도입하여 공사속도를 비상히 끌어올린 실례는 많다.

조선인민군 궁호식소속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투쟁은 하자고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고 그 어떤 어려운 정황에서도 반드시 지름길을 열어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동화상자료를 리용한 하루전투총화

류경건설관리국에서

대성52-115호동, 대성52-116호동 살림집공사를 맡은 류경건설관리국 건설장에 가면 류다른 하루전투총화를 목격할수 있다.

관리국의 하루시공과정을 속도와 질 등 여러 측면에서 해부학적으로 분석종합한 동화상자료를 놓고 그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전투총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총화에 참가한 지휘성원들은 액정텔레비존을 통해 관리국적인 하루작업정형은 물론 자기 단위의 시공과정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한눈에 볼수 있다.

국장 김창림동무와 김영준, 리광선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책임일군들은 해당 동화상자료들을 놓고 하루작업에서 거둔 성과와 결함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각 려단지휘관들은 관리국일군들과 현장시공감독일군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경험과 교훈을 찾는다.

자기 단위뿐아니라 다른 단위의 작업과정까지 직접 텔레비존화면을 통해 보면서 진행하는 작업총화는 각 려단지휘관들이 하루사업에서 거둔 경험들을 교환하는 중요한 계기로도 되고있다.

총화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각 려단지휘관들은 그 동화상자료를 가지고 자기 단위로 내려간다.

각 려단의 전투현장마다에 설치되여있는 액정텔레비존을 통해 또다시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진행되는 작업총화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따라배우고 오늘은 이 단위에서, 래일은 저 단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타파하는 새로운 작업방법들이 나오게 하는 과정으로 되고있어 더욱 현실적인것으로 주목을 끌고있다.

시공간적제한을 거의나 받지 않는 동화상자료에 의한 하루작업총화는 실천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실례로 골조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하였을 때 관리국에서는 통방식휘틀조립방법을 모든 려단들에 도입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함경남도려단에서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작업총화시간을 리용하여 각 려단들에서 보여주기사업과 관련한 동화상자료를 모든 대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후에도 여러 작업총화시간을 계기로 통방식휘틀조립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서 모범적인 려단들의 자료를 동화상화하여 적극 리용함으로써 실효를 보다 높이였다.

골조공사와 전기배관공사를 동시에 내밀어 살림집내부공사시간을 획선 단축할수 있는 지름길을 마련해놓은것도, 매 작업조들을 철근가공으로부터 휘틀, 철근조립, 혼합물타입, 다짐 등 10개 조로 세분화하여놓고 시공의 전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도 이렇듯 하루작업총화시간을 서로의 경험을 충분히 교환할수 있는 계기로 전환시킨데 요인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작전이 새로와야 결실도 새로운 법이다. 지금 관리국이 맡은 대성52-115호동, 대성52-116호동 살림집들의 외부미장공사는 이미 끝났으며 내부미장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관리국일군들은 맡은 살림집들의 내부공사기일을 더욱 단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들을 부단히 탐구하고 전투조직사업을 보다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하부망공사를 앞당겨 끝내도록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킨다.
—황해북도려단에서—

기능공양성사업에 힘을 넣어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분초가 다르게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려명거리건설장에서 공사실적이 높은 단위들에 가보면 기능공양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된다. 기능공양성사업은 우리 당의 중요한 건설정책의 하나인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여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얼마전 우리가 대성56-112, 56-113호동 살림집의 내외부미장을 결속하고 장식미장, 창문달기 등 마감공사를 립체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를 찾았을 때 이곳 지휘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바로 기능공양성과 관련한것이였다.

사실 이 부대라고 하여 항상 기능공대렬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려명거리건설장에 착공의 첫삽을 박을 때 건설자들속에는 신입병사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공사실적이 뚜렷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부대에서는 다른 시공단위들에 비해 살림집들의 골조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내외부미장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으며 8월말까지는 두동의 살림집공사를 완전히 결속할 대담한 목표밑에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방도는 명백하고 승산도 있다. 그것을 탐보해주는것이 바로 공사초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고급기능공들의 역할이다. 부대의 건설자들모두가 고급기능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은 종전의 기능공양성체계를 새롭게 갱신한데 요인을 두고있다.

장철남소속구분대의 실례 하나만 놓고보자.

이곳으로 달려온 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속에는 손에 미장칼을 잡아본적이 전혀 없는 신입병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기 구분대앞에 맡겨진 작업과제를 전시에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는 전투명령과도 같이 무겁게 받아안은 이곳 지휘관들은 즉시 새로운 작전을 펼치였다.

우선 4명을 한개 조로 하여 20여개의 작업조를 조직하였다. 매 조에는 대체로 1~2명의 고급기능공과 2~3명의 신입병사들을 배속시켰다. 다음 고급기능공들이 미장칼을 쥐고 신입병사들이 조력을 하던 종전의 기능공양성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작업조직을 거꾸로 하였다. 다시말하여 미장과 관련한 간단한 기술학습을 거친 후 신입병사들에게 대담하게 미장칼을 맡기고 고급기능공들은 조력을 하면서 그들의 작업과정에 나타나는 결함들을 수시로 되치해주도록 하였다.

아직 초보적인 미장작업에도 익숙되지 않은 신입병사들에게 미장칼을 맡기는 문제를 놓고 처음에는 론의가 분분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 우월성이 나타났다. 평시에 훈련을 잘하는 병사가 실전에서 더 많은 적을 쏘아잡을수 있는것처럼 직접 미장칼을 잡고 부단한 반복동작을 거치는 신입병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은 단 며칠사이에 눈에 띄게 높아졌다. 구분대가 맡은 공사구간은 리론과 실천이 하나로 결합된 학교와도 같이 끓어번졌다.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구분대의 지휘관들은 이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루전투총화도 속도와 질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의 작업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매일마다 성과에서는 경험을, 결함에서는 교훈을 찾는 이러한 전투총화는 그대로 따라앉아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으로 이어졌고 신입병사들 호상간, 고급기능공들 호상간 경쟁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밑불로 되였다.

지휘관들은 2~3일에 한번씩 신입병사들사이의 미장경기도 조직하였다. 그리고 그 실적을 계속 종합하여 작업조들사이의 경쟁결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되도록 하였다.

구분대의 전투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백수십명의 로력을 가지고있는 다른 구분대들에 비해 하루미장실적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기능공양성체계가 현실에서 나타내고있는 위력을 잘 알수 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주체미술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창작집단

중앙미술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들

나라의 믿음직한 미술작품창작기지인 중앙미술창작사가 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술가들은 당의 문예전사된 높은 긍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여나가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미술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미술작품창작기관인 중앙미술창작사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앙미술창작사는 눈부시게 비약하는 주체미술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며 자랑스러운 로정을 수놓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과 전국영웅대회에 즈음하여 국가미술전람회를 열도록 하시고 여기에 중앙미술창작사의 창작가들을 적극 동원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창작사가 미술작품창작집단으로서 첫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창작성과로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창작사안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근 1년에 걸치는 불타는 창작전투를 벌려 전람회에 60여점의 작품들을 출품하여 유화 《어머니》, 판화 《우리 선수 이겨라》, 유리공예 《태무늬파일그릇》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작품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이들이 창작한 미술작품들은 국가적인 미술전람회와 전시회들마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창작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를 위한 중요대상미술작품창작과 통일거리 야외장식조각 등 여러 대상들에 대한 미술작품창작에 참가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구현한 미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면서 이들이 창작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연고자들의 초상미술작품을 창작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7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연고자들의 초상미술작품전시회 《수령님의 전우들》을 성대히 진행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들이 창작한 미술작품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중앙미술창작사에서 도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선전화들 창작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속에서 중앙미술창작사의 창작집단은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천만년 무궁번영하여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를 비롯한 40상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모신 선전화작품들을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나오는 전우들과 연고자들의 초상화를 미술작품으로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인 카르치심을 주시였다.

이 최상의 믿음을 받아안은 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을 작품창작의 지침으로 삼고 불타는 창작전투를 벌려 290여점의 항일혁명투사들과 연고자들의 초상미술작품을 창작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작품들을 남김없이 펼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미술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정치행사들에 불러주시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미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창작가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옥류아동병원, 과학기술전당, 중앙동물원과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등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대상공사에 참가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펼쳐온 자랑스러운 창작사의 력사를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해주시였다. 창립 30돐을 맞으며 미술전시회를 성대히 열도록 해주시여 이들이 이룩한 성과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고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미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중앙미술창작사는 오늘 그 어떤 과제도 최상의 수준에서 해낼수 있는 능력있는 창작기지, 인민의 사랑을 받는 관록있는 창작집단으로서의 영예를 자랑스럽게 펼쳐가고있다.

참으로 중앙미술창작사가 걸어온 지난 30년의 력사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당사상전선의 기수, 믿음직한 미술작품창작집단으로 내세워주고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령도의 력사이며 주체미술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긍지높고 자랑스런 력사이다.

지난 30년간 중앙미술창작사는 110여차에 걸쳐 국가적인 미술전람회, 전시회들에 참가하여 4 500여점의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과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라!》를 비롯한 당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860여점의 선전화들을 풀위있게 창작하였다.

유화 《김장철》, 조선화 《명절의 아침》, 《2월의 서리꽃》, 《우리 힘, 우리 기술로》, 《푸른 숲을 그리며》, 수예 《조선의 국화 목란》 등 많은 작품들은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미술의 종류적특성과 기법적특성을 개성이 있게 잘 살린것으로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으며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그 나날 송성일, 박명일, 박영일, 황민동무를 비롯한 많은 창작가들이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로, 관록있고 재능있는 미술가들로 자라났다.

지금 중앙미술창작사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명작쏙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전통을 이어 천만군민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재능있는 인재후비들이 자란다

‖ 선천군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비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으며 목적의식적으로 품을 들여 키워야 합니다.》

선천군에서 재능있는 인재후비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선천군학생소년회관에서는 소조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소년들을 미더운 과학자, 재능있는 예술인, 체육인후비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고있다.

군책임일군들은 학생소년회관을 잘 꾸리고 소조운영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책임적으로 풀어주고있다. 이에 고무된 이곳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은 유능한 인재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짜그리 쏟아붓고있다.

관장 리승호동무는 지도교원들의 실력과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과학기술적으로 철저히 안받침된 앞선 교수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학생소년회관에서는 학생들의 실력과 축전, 경연, 경기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놓고 지도교원의 자질을 평가하여 사업의욕을 높여주고있다. 개인별, 소조별경쟁을 다양하게 자주 조직하는것과 함께 자질이 높은 지도교원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일반화함으로써 서로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신임지도교원들의 자질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 인재후비육성사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내밀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있다.

학생소년회관에서는 독특한 교수훈련지도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창안품전시회, 기량발표회, 육체기술지표측검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온 결과 청소년과외교양부문에서 앞장서나가는 자랑을 지니게 되였으며 재능있는 인재후비들을 배출할수 있었다.

한편 군에서는 바둑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선천소학교에서는 바둑소조운영을 알심있게 진행하면서 나라의 바둑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선수후비들을 키워내고있다. 교원 차정철동무는 기술실무수준과 훈련지도능력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에 나이가 어린 소조원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기초교육과 훈련지도를 짜고들어 여러명의 학생들이 바둑경기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받을수 있게 하였다.

군에서는 선천소학교에서 창조된 경험을 적극 일반화해나가고있다.

지금 선천군에서는 재능있는 인재후비를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조국의 래일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지혁철

—대홍단군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수영관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련석회의개최를 가로막는것은 반통일역적행위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석회의 제안은 남이 갈수록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는 등 주목할만 한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민족의 드높은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그러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련석회의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에서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제안을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라느니,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전술》이라느니, 《진정성없는 위장평화공세》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그 실현을 한사코 거부해나서고있다. 한편으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치중》할 때라고 고아대면서 련석회의개최를 위한 남조선각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활동을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박근혜패당의 방해책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으로서 내외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적대와 반목, 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출로를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적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외세가 아니라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거레의 지향으로 보나 극도의 대결국면에 처해있는 현 북남관계로 보나 지극히 정당하다.

지금 북남관계는 극단적인 대결의 지속으로 최악의 질식상태, 빈사상태에 처해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협조하며 발전과 번영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한피줄을 나눈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세기와 년대를 넘어가며 서로 반목질시한것도 모자라 전쟁의 문턱에 서게 된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태가 아닐수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은 사람도 산천도,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도 다 잃게 될것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공화국은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과거도 다 포용하려는 애국의 결단과 대용단으로 남조선당국을 통일의 동반자로 불러주었고 북남관계개선의 합리적인 길을 다시금 제시하여주었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된다. 우리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는 북과 남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현실적방안들을 모색한다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문제해결의 출로를 열어나갈수 있을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지당하다.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고귀한 경륜과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에 민족대단결의 빛나는 장을 펼친 4월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우리 민족이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리유로는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는 진리를 뚜렷이 새겨주었다.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이 60여년전의 그 나날처럼 민족의 총의를 모아 민족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론의한다면 얼마든지 과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통일과 번영에로 나아갈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개최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해나서고있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련석회의개최제의가 조선반도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한 의사표명》이 없다느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련석회의개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적인 《대북압박》놀음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을 짓밟아버리고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한층 강화하여 동족압살야망을 한사코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괴뢰집권세력이 동족이 내미는 화해와 단합의 손길은 뿌리치고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대북압박》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고 제목을 조이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괴뢰패당이 지금까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해왔지만 걷어낸것이란 쥐뿔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저들내부의 통치위기의 심화와 대외적고립뿐이다.

누워서 뱉은 침은 제 낯짝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여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대해나설수록 그것이 반역《정권》에 대한 온 민족의 분노와 증오심만을 폭발시키고 그로 하여 저들의 종국적파멸이 앞당겨질뿐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개최는 시대와 거레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남조선괴뢰당국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력량은 하나로 굳게 뭉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의의를 가지게 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개최를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계속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무엇으로도 찢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심 철 영

군사적충돌을 노린 위험천만한 도발

서해 5개 섬일대에서 남조선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망동이 계속되고있는 속에 얼마전 괴뢰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그 무슨 《북의 화력도발》과 《기습강점시도》에 대비한다는 간판밑에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실탄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실전대응절차를 숙달》한다고 고아대며 《K-9》자행포와 공격용직승기를 비롯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동원한 괴뢰들은 《도발원점》과 《지원 및 지휘세력》을 가상한 표적들을 향해 포탄 등을 미친듯이 퍼부어댔다. 호전광들은 《북의 해안포를 정밀타격》한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끌어들인 《스파이크》미싸일까지 쏘아대며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최대열점지역인 서해 5개 섬일대에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스산한 기운이 떠돌고있다. 이러한 속에 괴뢰들이 또다시 벌려놓은 해상실탄사격훈련은 가뜩이나 험악한 서해열점수역정세를 더욱 격화시켜 북남사이에 군사적충돌을 야기시키려는 고의적이며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이다.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앞두고 통일대회합의 개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시기에 괴뢰군부깡패들이 서해열점수역에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통일적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북남쌍방사이에 가장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가 조성되여있는 서해열점수역에는 무력충돌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서해열점수역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이곳에서 무력충돌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금껏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하지만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지 않는 박근혜패당은 그 무슨 《북방한계선고수》의 간판밑에 서해 5개 섬일대에 새로운 전쟁장비들과 병력을 련이어 증강배치하고 각종 도발행위에 열을 올리며 정세를 바싹 긴장시켜왔다. 더우기 얼마전 괴뢰군잠깨들이 서남해상에서 정상적인 근무수행중에 있던 우리 해군련락선을 정조준하여 기관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한것으로도 부족하여 《3국어선단속》이라는 구실밑에 한강하구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나중에는 《인공어초》설치놀음까지 벌리며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것은 실로 위험천만한것이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서해열점수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 괴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은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번져질수 있다.

이번에 괴뢰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극도의 긴장이 서린 서해열점수역정세에는 아랑곳없이 이곳에서 또다시 우리를 겨냥한 요란한 해상실탄사격훈련놀음을 벌린것은 박근혜패당이 어떻게 하나 새로운 무장충돌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발화점으로 하여 북침전면전쟁을 일으키려고 리성을 잃고 허덕이고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광기적인 북침전쟁연습과 《싸드》배치소동으로 하여 최악의 긴장국면에 처해있다. 바로 이런 때에 박근혜패당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데 대한 우리의 애국애족적제안에 호응해나올 대신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도발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뜀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극도의 위기상태에 빠뜨리고있다.

동족압살야망에 사로잡혀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북침전쟁도발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괴뢰들이야말로 우리 겨레에게 화만 몰아오는 우환거리, 지체없이 제거해야 할 제앙의 화근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북남사이의 최대열점수역인 서해 5개 섬주변에서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함부로 날뛰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무모하게 날뛴다면 언젠도의 불바다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 몸서리치는 경멸의 불벼락을 들쓰게 될것이다.

도발자, 전쟁광신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멸망의 운명뿐이다.

리 성 호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투쟁
남조선과 해외에서 광범히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4일 군청앞에서 《싸드》배치책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싸드》배치지를 다시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성주군을 《싸드》배치의 최적지라고 하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것으로서 아무런 토의도 절차도 없이 배치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배치지재검토소식이 전해진것과 관련하여 성주《싸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가 남조선 그 어디에도 《싸드》를 배치해서는 안되며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립장을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싸드》배치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으며 남조선 그 어디에서도 통할수 없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박근혜를 조소,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며 투쟁열을 고조시켰다.

*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긴장을 불아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싸드》배치망동을 반대하는 제미동포들의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재미동포들은 7월 15일부터 미국 백악관의 홈페지를 통해 《싸드》배치제회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청원서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인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결정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될 《싸드》배치반대서명운동에 8월 4일현재 5만 5 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지금도 서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을 일삼는 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담화는 남녘땅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온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싸드》배치책동을 끝내 오르는 민족적의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싸드》배치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체계를 완비할뿐아니라 린근나라들까지 핵조준경안에 넣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항시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 나라가 주체의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동족압살과 《흡수통일》망상에 환장이 된 박근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념원은 안중에 없이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굴종하여 미국본토에도 겨우 몇개밖에 없는 《싸드》포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특등매국범죄를 감행해나섰다.

괴뢰패당이 해방후 70년이상이나 남조선을 불법강점하고있는 미제를 상전으로 섬기고있는것도 치욕스러운 일인데 《싸드》배치를 위해 귀중한 강토까지 팔아넘겨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제공하였으니 이 친인공노할 역적행위를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박근혜는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하여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남남갈등》이니, 《외부세력개입》이니 하면서 과쇼권력으로 탄압하고있을뿐아니라 미국과의 야합하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으로 민족의 머리우에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 하고있다.

희세의 사대매국노, 전쟁사환군인 박근혜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족의 안녕도 있을수 없다.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의 사대매국행위를 단죄규탄하며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활화산처럼 타번지고있으며 역적패당에 대한 온 겨레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치닿고있다.

겨레의 지향,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며 친미사대와 매국반역을 일삼는 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것도 모자라 온 겨레에게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재난을 서슴없이 들씌우려는 박근혜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 동족대결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남녘동포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단평 철갑모 쓴 망나니무리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입수하여 공개한 괴뢰국방부 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남조선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괴뢰군병영내에서 만연되고있는 각종 폭행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자기와 눈길이 마주쳤다고 때린 사실, 자면서 코를 곤다고 기합을 가한 사실, 세면장에서 먼저 나간다고 불러세워 그의 몸에 오줌을 갈긴 사실, 심지어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 등 별의별 폭행이 다 있다. 공병삽과 빼찌, 곡괭이 등 눈에 뜨이는 모든 도구들이 다 폭행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 그야말로 철갑모 쓴 망나니집단, 도덕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오합지졸의 무리인 괴뢰군의 진면모를 다시금 폭로해주는 비화가 아닐수 없다.

괴뢰군부는 그 무슨 《병영문화혁신운동》이라는것을 벌써 여러해째 벌리고있다. 하지만 보는바와 같이 그 식이 장식이다.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몽둥이금물이 지배하는 승냥이소굴,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고 폭력이 없이는 단 한시도 유지될수 없는 괴뢰군에서 《폭력근절》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평이다.

청와대의 미친 로과가 때없이 몰아오는 전쟁공포증으로 날로 심장이 졸아들 지경인데 군내부의 폭행은 날로 심해가고있으니 기를 펴지 못하는 사병들은 고통을 면하려고 탈영하거나 자살하는 길을 택하고있다.

그 꼴을 해가지고서도 밤낮 《싸움하는 군대》니, 그 누구에 대한 《응징》이니 하고 설레발치고있는 괴뢰패당이야말로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는 전하의 바보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허 영 민

박근혜《정권》은 련석회의제안을 부정하지 말라
련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발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해외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손형근《재일한국인주통일련합》의장이 5일 련석회의개최를 악랄하게 방해하는 남조선괴뢰당국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북측의 진정성있는 련석회의제안에 화답하여 해외동포들이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해외측준비위원회를 결성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북측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련석회의준비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련석회의성사를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담화는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전형적인 통일공세》니, 《대화공세》니 하고 걸고들며 북의 제안을 거부했을뿐아니라 련석회의를 지지환영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에 대해 방해해나섰다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이로 하여 이번 8.15를 계기로 련석회의를 진행하는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였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해외동포들이 북과 남의 각계각층과 함께 민족통일운동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련석회의를 하루빨리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근혜《정권》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란다면 련석회의제안을 함부로 부정하지 말고 개최의 의미를 길이 새겨보아야 한다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련석회의제안에는 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할 절박성과 정당성이 담겨져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정권》이 방해책동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미로 달아오르는 세계의 민심

오늘의 세계

국제사회가 격렬한 항의와 규탄을 미국에 쏟아붓고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미국이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계속 못되게 놀아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베네수엘라대통령이 자국의 구좌들을 폐쇄하기로 한 미국 씨티은행의 결정을 비난하였다. 그는 씨티은행이 사전통보나 의사소통이 없이 30일내에 베네수엘라구좌들을 폐쇄하기로 한데 대해 지적하면서 이는 금융봉쇄에 해당된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구좌들을 폐쇄하기로 한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반제자주보루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압박소동의 연장이다.

나라의 빈궁과 외부의 간섭을 청산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지향을 가진 우고 차베스가 1999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미국은 이 나라에 대한 압살책동에 광분하였다.

차베스가 생존해있던 기간에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국은 선임대통령의 뜻을 이어 니꼴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된 후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의 도수를 높이는것과 함께 내부불순세력들을 사촉하여 반정부활동에로 내몰았다.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최근년간 베네수엘라에서는 반정부세력이 머리를 쳐들고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경제형편을 악화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일어났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국가안전위협》으로 지정한 대통령행정명령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추가제재를 취한다 하면서 기승을 부렸다. 또한 마두로대통령을 《무지막지한 폭군》, 《사람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 등으로 몰아대면서 반정부여론을 조성하고있다.

이 모든 책동은 철두철미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행위이며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한 강도적전횡이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단죄하고 그에 각성을 높이고있는 속에 최근 빠나마에서는 1989년 12월에 있은 미국의 침략행위를 폭로하는 위원회가 수립되였다.

미국의 빠나마침공은 이 지역에 대한 영구주둔을 노리고 감행한 극악한 침략이였다. 1903년 빠나마운하지대에 대한 영구조차권을 강탈한 미국은 빠나마인민들의 피땀으로 운하가 건설된 후 운하의 경영권과 리윤을 영원히 독차지하기 위해 발악하였다. 빠나마인민들의 투쟁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로 하여 운하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미국은 1989년의 한해가 저물어가던 12월 20일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미국의 침략행위로 하여 헤아릴수 없이 많은 빠나마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조직된 위원회는 당시 미국의 침략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해명하고 인권침해행위들을 조사하며 국가추모일을 선포하는것을 검토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빠나마 부대통령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화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범죄적만행을 낱낱이 까밝히려는 립장을 밝혔다.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온 미국이 정의의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라틴아메리카만이 아닌 세계 각지에서 반미기운이 고조되고있다. 지난 7월 31일 캄보쟈 수상은 청년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중동을 피비린 분쟁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곳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구실밑에 살륙적인 전쟁과 분쟁들을 조장시켰으며 그로 하여 지역나라들에서 매일 수백수천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명이 피난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보다 앞서 아프리카동맹 경제, 사회, 문화리사회의 한 고위관리는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을 비난하였다. 그는 수단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거의 20년동안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 나라 녀성들과 청년들에게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제재로 말미암아 수단의 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으며 특히 인민생활문제에 많은 난관이 조성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수리아의 반미림장이 강경하다. 수리아대통령은 최근 미국 NBC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부전복음모책동을 폭로하였다. 그는 지금 수리아는 테로와의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있지만 이와 반면에 미국은 테로그루빠들을 수리아정부를 붕괴시키는데로 내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이슬람교국가》와의 전쟁이라는것이 테로분자들을 수리아의 합법적정부를 뒤집어엎는데 리용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명백히 드러났다.

얼마전 미국의 어느 한 학계인물은 이렇게 평하였다.

《〈이슬람교국가〉의 존재와 성장은 서방 특히 미국의 전략적오유의 산물이다. 미국과 서방은 이를 소멸할 대신 그와 협력하고있다. 미국은 여전히 수리아의 아싸드정부전복에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국제사회는 강권과 전횡, 지배주의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을 극도로 증오하고있다.

미국이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 지배주의정책에 매여달린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배척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철혁

국제사회계가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강력히 규탄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결정한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책임자는 미국은 조선의 정정당당한 조치들을 악용하여 마치 긴장격화의 원인이 조선의 핵보유에 있는듯이 세계여론을 오도하면서 남조선에 《싸드》를 배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까밝혔다.

미국 평화를 위한 로병조직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의 《핵,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비결정을 정당화하고있으나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로씨야와 중국의 군사적잠재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지역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자체방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싸드》배비에 거액의 자금을 바쳐야 할처지에 놓여있다.

《싸드》배비는 명백히 조선과 주변나라들에 대한 도발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것과 함께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남조선주민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싸드》배비결정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괴로 새긴 《〈싸드〉배치 결사반대》구호를 추켜들고 단식풍성을 비롯한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독선적인 통치방식과 빈력은 군사파쑈독재로 남조선을 피로 물들인 애비의 기질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제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미국은 남조선에 핵전략자산들을 련속 끌어들이고 《싸드》를 배치하려는 등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험적이며 극단적인 지배주의정책과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무조건 포기하여야 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미싸일방패가 조선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략적착오로 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바라는것은 아시아태평양과 그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담보할수 있는 미싸일방위체계이다.

일단 《싸드》를 끌어들이면 남조선은 미국이 다루기 편리한 도구로 될것이며 대외정책을 작성하고 실현해나가는데서 자률성을 잃게 될것이다.

남조선은 계속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가 지른 불에 타죽겠는가 아니면 력사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미래에 낯을 들리며 평화를 귀중히 여기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단합과 협조의 49년

1967년 8월 8일 타이의 수도 방콕크에서는 동남아시아 5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 외무상들의 참가밑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끝에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련합)창립이 정식 선포되였다.

아세안은 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고 협력하여 사회적진보와 공동의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이 지역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나왔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사회경제발전이 심히 억제당하였다. 독립후에도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 등으로 하여 민족경제발전과 새 사회건설사업에서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었다.

이 나라들은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에 지역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킬 때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지역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로부터 지역나라들은 경제적협조를 강화하며 이 지역을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평화와 자유 및 중립지대로 만드는것을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 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성원국수가 창립당시 5개로부터 10개로 늘어난 아세안은 오늘 동남아시아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적협조기구로서 지역의 안정과 사회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아세안은 해마다 일련의 회의들을 소집하고 지역적단합과 협조를 강화하며 성원국들의 공동의 번영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하고있다.

근 50년동안 아세안은 자기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활동하여왔으며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아세안은 지역의 정치적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성원국들이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화공존과 힘의 사용금지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아세안성원국들은 미래에 대한 락관과 확신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전진해나가고있다. 지역의 안정과 평화,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위한 아세안의 활동은 날로 활발해질것이다.

박 예 경

ㄱ-611270 (정기간행물발송등록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